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 있는 운전자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 외 벌점·벌금 부과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과적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내년부터 다시 적

발되면 경찰에 고발한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 차량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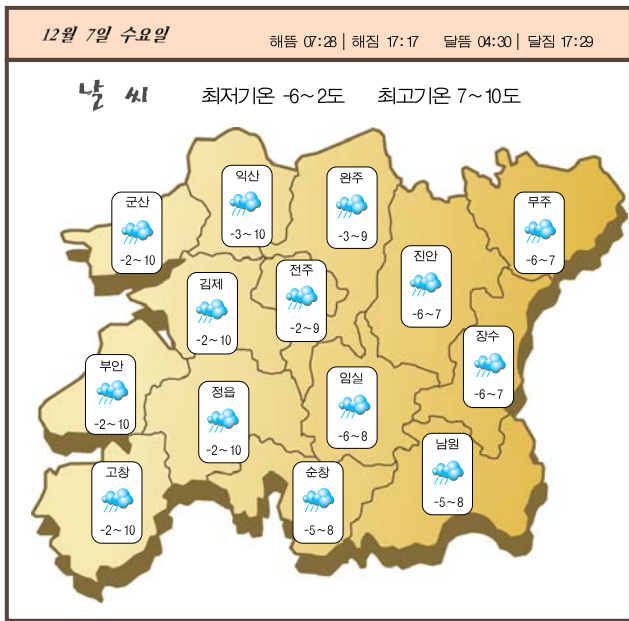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 불량, 타이어 파손, 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 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과적 차량 3만2533건 가운데 9805건이 상습 위반이었다.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하나, 화물차 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무게 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 가능성이 높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거리가 길어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과적 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전주시, 주민·상인들 도시재생 추진 타 지역 벤치마킹

워크숍 일환으로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참관

수립된 주민 실천계획 도시재생사업 접목해 시행 계획

전주시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역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원도심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날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의 일환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2016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참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타 지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중부발전센터에서 퍼실리테이션 회의를 개최하고, 원도심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사회기반시설 재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실천계획을 3개조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했다.

A(필달로)조는 동네 환경정비를 주제로 꽃 화분 등을 활용한 경관개선 등의 계획을 수립했으며, B(작짜강)조는 도시 쓰레기문제를 주제로 주민참여를 통한 청소와 마을공동체를 구성한 공터 활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C(꽃심)조는 소풍문제를 주제로 해피플랫프로젝트(소규모 공연, 풍호회, 마을신문, SNS 소통 등)를 계획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립된 주민



겨울 딸기 드세요 6일 원주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시험 연구용으로 재배중인 국산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겨울철에 생산된 딸기는 봄철 딸기에 비해 당함량이 높고 신맛이 적어 품질이 뛰어나다.

실천계획들을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해 주민협력 시범사업으로 구체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 등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노송동과 중앙

동, 풍남동 3개동 일부(1.43km) 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진단 및 재생여건을 분석하고 원도심 지역의 문화·관광, 상업, 행정·업무, 주거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상주·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민선 6기 들어 '시민우선,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전주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군산대 공과대학 하윤도 교수 '21세기의 우수 지식인 2000인' 선정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자동차조선해양공학부 하윤도 교수(37(사진))가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발행기관 중 하나인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의 우수 지식인 2000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 of the 21st Century)'에 등재됐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인명센터(IBC)'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

하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주로 개인적 학술적 연구에서 중요한 업적을 달성한 전 세계의 학자 및 연구자를 등재하고 있다.

2011년 군산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해양구조물/플랜트 해석 및 설계분야에 대해 연구해 왔고, 다물리현상을 고려한 구조 최적설계 및 동적피괴역학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2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위원,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심사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시, 상상동아리 활동성과보고회 개최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상상동아리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전주시 상상동아리 활동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2개 상상동아리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녹색성장 △AMO플러스 △가온누리 △착한에너지 △파스아리 △유토피아 △기외지붕 등 7개 동아리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연구사례 등을 발표했다.

시는 각 동아리별 성과발표회를 마친 후 창의성과 적극성 효과성 발표태도 등을 심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MO플러스' 팀과 '녹색성장' 팀을

최우수 동아리로 최종 결정했다.

'AMO플러스' 팀은 지역 독서단체 및 동아리와 협업을 통해 독서토론회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재능 나눔활동 전개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녹색성장' 팀은 전주지역 자연생태계를 조사 연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김태수 전주시 총무과장은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많은 성과가 도출되어 전주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며 "내년에도 더욱 더 정진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견인하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